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경험 유형 간 비교를 중심으로

신나은* · 강현지** · 김요한***

Ⅰ 알기 쉬운 개요

최근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 경험은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으로 이어져 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폭력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와 가해 중복경험)에 따라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에서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 1,552쌍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피해만 경험한 경우에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만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폭력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우울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부모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학교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폭력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체계와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조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학교폭력 연구의 개념을 확장하고 향후 개입과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교신저자,
k542467@naver.com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투 고 일 / 2025. 6. 9.

심 사 일 / 2025. 8. 11.

심사완료일 / 2025. 8. 25.

Ⅰ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순수피해, 순수가해, 피·가해 중복)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중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 1,552쌍의 응답자료를 추출하여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중 1인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발생률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 청소년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순수피해 경험 청소년 21.9%, 순수가해 경험 청소년 16.5%, 무경험자 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특히 중복경험 청소년의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순수피해 경험 청소년과 중복경험 청소년의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순수가해 경험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우울과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폭력 경험이 또래와 가족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경험 청소년이 가장 높은 위험군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중복경험 청소년을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과 가족 단위의 통합 지원체계, 조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이 가정 내 폭력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 개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서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조기 선별 및 중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을 또래와 가족 관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학교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폭력 연구의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부모폭력, 학교폭력, 피·가해 중복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I. 서 론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부모대상 폭력(Child-to-Parent Violence, CPV)이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 내 갈등으로 여겨졌지만, 발생 빈도와 양상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이소민, 2024). 실제로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청소년은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약 48배 증가하였다(한겨레, 2023.5.10.). 문제는 자녀에게 폭력을 당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우려와 자녀 양육 실패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으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이지현, 2024b; Condry & Miles, 2014). 피해자인 부모는 반복되는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침묵함으로써 부모폭력 피해의 은폐를 유발하며 폭력은 고착화 된다(김재엽, 정윤경, 2007).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또래와의 부정적 경험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Lopez-Martinez, Montero-Montero, Moreno-Ruiz & Martinez-Ferrer, 2021).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오은화, 2018), 이러한 시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폭력 경험은 심리·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이인선, 최지현, 2014), 폭력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정은, 최은희, 2012; 김경집, 2005; 김재엽, 이현, 장건호, 201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 청소년은 우울, 불안, 정서적 불안정, 심리적 위축 등의 내면화된 정서적 반응을 주로 보이는 반면(김준범, 최서연, 2020; 남석인, 남보영, 장은혜, 2014; 박지연, 2017; 정여주, 김동일, 2012; 지하영, 김빛나, 2020), 가해 청소년은 공격성 및 폭력 성향 증가 등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2016; 조주영, 오인수, 2014). 특히 피해와 가해를 중복경험한 청소년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중첩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고된다(고경은, 이수림, 2015; 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Kozasa, Oiji, Kiyota, Sawa & Kim, 2017; Mark, Varnik & Sisask, 2019).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단지 학교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으로 확장되어 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폭력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경험은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폭력 행동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전이된다(Lopez-Martinez et al., 2021). 이러한 과정은 정서조절곤란, 자기통제력 결핍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통해 나타나며, 특히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행동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Calvete, Orue & Gamez-Guadix, 2013).

최근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 연구는 대부분 가해와 피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접근해 왔으며, 피·가해 중복경험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실제 또래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 피해와 가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Roberts Jr & Morotti, 2000), 학교폭력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은 또래 집단 내에서 복합적으로 얽힌 폭력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을 피해, 가해, 피·가해 중복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경험 유형에 따라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 행동의 발생 여부 및 영향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폭력 행동이 또 다른 폭력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조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부모폭력 개입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2. 학교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학교폭력 경험 유형(피해, 가해, 피·가해)에 따라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폭력의 개념과 형태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족 내 위계상의 권력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로 행사되는 것과 달리 부모폭력은 권력이 적은 자가 더 많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다(Peek, Fischer & Kidnell, 1985). 부모폭력은 “부모를 대상으로 힘을 얻거나 부모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자녀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Cottrell, 2001), Harbin과 Madden(1979)은 ‘Battered Parents Syndrome’을 통해 부모폭력을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또는 물리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비언어적 위협”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약 5~16%로 보고되었으며(김재엽, 이서원, 1998; 김영희, 1999), 해외에서는 9~33% 수준으로 나타나 국가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Ulman & Straus, 2003; Paulson, Coombs & Landsverk, 1990; Agnew & Huguley, 1989; Cornell & Gelles, 1982).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57%, 언어폭력이 22%, 흥기 사용이 17%, 물건 던지기가 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82%로 아버지에 대한 폭력(18%)보다 월등히 높았다(Evans & Warren-Sohlberg, 1988). 다른 연구들 또한 어머니에 대한 폭력률과 그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Cottrell & Monk, 2004; Agnew & Huguley,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동장애, 정신질환,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과 같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의 어려움이나 낮은 학업성적 역시 부모폭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지현, 2024a; 김영희, 1999; Soong, 1997; Agnew & Huguley, 1989).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었다(이지현, 2024a;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 김재엽, 송아영, 2007).

2. 학교폭력경험의 개념과 형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1항). 이에 따라 국내 판례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한 폭행이나 명예훼손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유사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형법상 기준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적 관점에 더 무게를 두는 해석임을 보여준다(임남수, 김미정, 2025).

2019~2024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피해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24).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통 지표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푸른나무재단, 2024),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의 심각성과 복합성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Olweus, 1997; Roland, 2002). 학업 스트레스, 학업중단,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유지희, 이은진, 2022; 김웅수,

홍문기, 강진, 2025). 또한 학교폭력 피해는 향후 또 다른 폭력 행동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Finley, 2014). 김경은과 윤혜미(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70% 이상이 복수 충동을 느끼고 다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O'Keefe(1997)와 Riggs 등(1990)은 또래에 의한 학교폭력 경험과 폭력적 환경 노출이 성인기 데이트 폭력과 같은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3.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한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다차원적 환경 체계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한다. 이 이론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환경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간 행동을 환경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청소년의 부모폭력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을 독립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Hong, Kral, Espelage & Allen-Meares, 2012; Cottrell & Monk, 2004). 이 연구들은 부모폭력의 원인을 단일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 개인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는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rmstrong et al., 2018; Calvete, Orue & Gamez-Guadix, 2013; Ibabe, Arnoso & Elgorriaga, 2014; Papamichail & Bates, 2022), 이러한 경향은 부모와의 관계 속 갈등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울 증상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높은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로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갈등 상황에서 이를 외현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모를 향한 폭력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Calvete, Orue & Gamez-Guadix, 2013).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이나 부모 간 폭력의 목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Beckmann, Bergmann, Fischer & Moßle, 2021; Gallego, Novo, Farina & Arce, 2019; Margolin & Baucom, 2014; Papamichail & Bates, 2022). 특히, 가족 내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폭력적 대처 방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를 향한 공격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이혼, 별거, 사망 등)는 부모의 양육 기능 약화 및 자녀의 내적 통제력 저하를 야기하여 부모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Kennair & Mellor, 2007). 또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이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이러한 결핍과 좌절은 부모를 향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다(Condry & Miles, 2014).

부모폭력과 관련된 학교환경 요인에 주목한 국외 연구들은,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이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ntreras와 Cano(2016)는 청소년이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할 경우, 이러한 누적된 폭력 노출이 부모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ottrell와 Monk(2004) 또한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고립감, 또래와의 갈등, 부정적 행동 양식 등 부적응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겪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가정 내 갈등과 맞물려 부모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단순히 교육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내 폭력 행동과도 연계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폭력과 관련된 학교환경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고, 무단결석이나 수업 이탈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Howard & Abbott, 2013; Paulson et al., 1990). 더불어, 학업 성취도 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교육적 어려움 역시 부모폭력 행동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Loinaz, Barboni & Ma-de-Sousa, 2020).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김영희(1999)는 학교부적응을 겪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5년 주기로 시행되는 횡단면 조사이다. 2018년 조사는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4,000세대(일반가구 2,500세대, 저소득층 가구 1,500세대)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는 면접조사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 기반 개인면접 방식(tablet-aided personal interview)으로 수행되었으며, 만 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와, 만 9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1,552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응답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중 1인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폭력

부모폭력은 부모용 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 12개월간 청소년 자녀로부터 폭력 피해의 빈도를 묻는 총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각 문항에는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함”,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 “물건을 집어던짐”, “세계 밀침”, “발로 차거나 때림”이 있으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으로 하여 행위의 빈도를 수치화하였다. 최종 점수는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폭력 가해의 유무를 측정하고자 5문항의 평균값에서 1점을 ‘0(부모폭력 무)’으로, 평균이 1점을 초과한 값은 ‘1(부모폭력 유)’로 재코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3$ 으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학교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노혜련 외(2006)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 형식의 공격성 척도(PNI)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학교폭력은 교내 및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물리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괴롭힘,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며,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피해와 가해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항목으로는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응답 범주는 ‘전혀 없다(1점)’, ‘1번(2점)’, ‘2~3번(3점)’, ‘1년에 6~9회(3점)’, ‘1년에 10회 이상(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 경험과 자신이 상대방

에게 행한 가해 경험을 모두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 유무를 측정하고자 7문항의 평균값에서 1점을 '0(학교폭력 경험 무)'으로, 평균이 1점을 초과한 값은 '1(학교폭력 경험 유)'로 재코딩하였다. 최종 분석 모형에서는 기준집단인 무경험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순수가해 집단, 순수피해 집단, 피·가해 중복 집단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4$ 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주요 인구사회학적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은 청소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우울, 공격성 등)과 가족·학교·사회 환경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이 강조한 개인-환경 간 상호작용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가정소득수준, 가구형태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부모폭력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우울과 아동학대도 함께 포함하였다(김재엽, 류원정, 김준범, 2016;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 이지현, 2024).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부모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부모폭력 가해 여부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후, 청소년의 부모폭력 가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가정소득수준, 가구형태, 우울, 아동학대의 통제변수만을 포함하였고, 2단계에서는 여기에 학교폭력 경험 유형(순수피해, 순수가해, 피·가해 중복)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부모폭력 가해 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인 부모폭력 가해 여부는 이분형

더미변수로 설정되었으며, 각 단계별 회귀계수와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학교폭력 경험이 부모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838명(54.0%), 여학생이 714명(46.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4세 233명(15.0%), 15세 240명(15.5%), 16세 300명(19.3%), 17세 386명(24.9%), 18세 393명(25.3%)이었다. 가정소득수준은 중위소득 50% 미만 445명(28.7%), 50~100% 미만 524명(33.8%), 100~150% 미만 396명(25.5%), 150% 이상 180명(11.6%)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양부모가정 1123명(72.4%), 한부모 및 조손가정 429명(27.6%)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은 2.92이며, 아동학대의 평균은 0.5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52)

항목	세부항목	명	%
성별	남자	838	54.0
	여자	714	46.0
연령	14세	233	15.0
	15세	240	15.5
	16세	300	19.3
	17세	386	24.9
	18세	393	25.3
가정소득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445	28.7
	중위소득 50~100% 미만	524	33.8
	중위소득 100~150% 미만	396	25.5
	중위소득 150% 이상	180	11.6
가구형태	양부모가정	1123	72.4
	한부모 및 조손가정	429	27.6
항목	M (SD)	Min.	Max.
우울	2.92(2.21)	0	9
아동학대	.52(.74)	0	6

2. 조사대상자의 주요변수 실태

1) 부모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부모가 청소년 자녀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항별로 3.7%에서 11.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전체 항목 중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가 1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가 6.1%, “세게 밀쳤다”가 5.7%로 나타났다. 이어 “부모님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4.8%,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언어적 폭력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함을 시사하며, 신체적 폭력의 빈도는 낮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2

부모폭력 경험 실태 (N=1,552)

종속변수	유형구분	경험 유(%)	경험 무(%)
부모폭력 경험	전 체	248(16.0)	1304(84.0)
	1)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185(11.9)	1367(88.1)
	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95(6.1)	1457(93.9)
	3) 부모님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75(4.8)	1477(95.2)
	4) 세게 밀쳤다.	88(5.7)	1464(94.3)
	6)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58(3.7)	1494(96.3)

2) 학교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1,552명 중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95명(31.9%)으로, 전체의 약 1/3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독립변수로 사용된 학교폭력 경험은 순수피해, 순수가해, 피·가해 중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순수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1명(9.7%), 순수가해경험은 79명(5.1%), 피·가해 중복경험은 265명(17.1%)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하위문항별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피해경험은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1번 문항)가 1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3번 문항)가 12.8%로 나타났다.

표 3

학교폭력 경험 실태 (N=1,552)

독립변수	유형구분	경험 유(%)	
학교폭력 경험	전 체	495(31.9)	
	순수피해경험	151(9.7)	
	순수가해경험	79(5.1)	
	피해가해 중복경험	265(17.1)	
	하위문항	피해경험(%)	가해경험(%)
	1)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271(17.5)	247(15.9)
	2)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186(12.0)	153(9.9)
	3)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198(12.8)	133(8.6)
	4)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했다.	103(6.6)	87(5.6)
	5)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93(6.0)	76(4.9)
	6)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90(5.8)	89(5.7)
	7)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68(4.4)	58(3.7)

3.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경험 차이 검증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부모폭력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1.731$, $p<.001$). 무경험 집단의 부모폭력 경험률은 9.4%였으나,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모두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순수피해집단은 21.9%로 무경험 집단에 비해 약 2.3배, 순수가해 집단은 16.5%로 무경험 집단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이었다. 피·가해 중복 집단은 38.9%로 무경험 집단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 경험, 특히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복경험이 부모폭력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경험 유무 교차 분석

		부모폭력 경험			χ^2
		있음	없음	전체	
무경험 집단	(n)	99	958	1057	141.731***
	(%)	9.4	90.6	100.00	
순수피해 집단	(n)	33	118	151	
	(%)	21.9	78.1	100.00	
순수가해 집단	(n)	13	66	79	
	(%)	16.5	83.5	100.00	
피·가해중복 집단	(n)	103	162	265	
	(%)	38.9	61.1	100.00	
전체	(n)	248	1304	1552	
	(%)	16.0	84.0	100.00	

* $p<.01$, ** $p<.01$, *** $p<.001$

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검증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1단계에는 통제변수를, 2단계에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 우울($\beta=.18$, $p<.001$), 아동학대($\beta=.67$, $p<.001$)가 부모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우울($\beta=.15$, $p<.001$), 아동학대($\beta=.51$, $p<.001$)가 부모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 중에서는 순수피해 집단($\beta=.79$, $p<.001$, odds ratio=2.20)이 부모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가해중복집단($\beta=1.44$, $p<.001$, odds ratio=4.20)은 기준집단(무경험집단)에 비해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순수가해 집단($\beta=.22$, $p<.527$, odds ratio=1.24)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이도(Specificity)는 90.8%, 민감도(Sensitivity)는 37.9%, 전체 분류 정확도(PCC; Percentage of Correctly Classified observations)는 82.3%로 나타났다.

표 5

학교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단계				2단계			
		β	S.E.	odds ratio	95% CI (하한 - 상한)	β	S.E.	odds ratio	95% CI (하한 - 상한)
(상수)		-3.45***	.92	.03		-4.46***	.96	.01	
통제 변수	성별	- .24	.15	.79	.59 - 1.06	-.17	.15	1.11	.63 - 1.14
	학년	.05	.05	1.06	.95 - 1.17	.09	.06	1.10	.99 - 1.23
	가정 소득수준	-.01	.08	.99	.85 - 1.15	.01	.08	1.01	.86 - 1.18
	가구형태	.02	.17	1.02	.74 - 1.42	.10	.17	1.11	.79 - 1.56
	우울	.18***	.03	1.20	1.13 - 1.28	.15***	.04	1.16	1.09 - 1.25
	아동학대	.67***	.09	1.96	1.66 - 2.32	.51***	.09	1.66	1.40 - 1.98
독립 변수	학교폭력유형 (ref. 무경험집단)								
	순수피해					.79***	.23	2.20	1.39 - 3.47
	순수가해					.22	.34	1.24	.64 - 2.41
	피·가해 중복					1.44***	.18	4.20	2.97 - 5.95
-2Log우도		1237.58				1170.71			
Nagelkerke R ²		.13				.20			
Specificity (%)		93.7				90.8			
Sensitivity (%)		23.4				37.9			
PCC (%)		82.5				82.3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1.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순수피해, 순수가해, 피·가해 중복)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중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응답자료에서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1,552쌍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교차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부모폭력 경험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1.731$, $p<.001$).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 청소년의 부모폭력 경험률은 38.9%로 가장 높았고, 순수피해 경험자는 21.9%, 순수가해 경험자는 16.5%, 무경험자는 9.4%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학교폭력 경험 유무를 넘어서, 경험 유형에 따라 부모폭력 행동 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복경험자(odds ratio=4.20, $p<.001$)와 순수피해 경험자(odds ratio=2.20, $p<.001$)는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순수가해 경험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27$).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학교에서 가해를 하는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다. 예컨대 Moulds와 Day(2017)의 체계적 고찰에서는 부모폭력(AVTP)이 또래나 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함께 광범위한 대인적 적대성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폭력이 공격적 성향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피해 경험, 특히 피·가해 중복 경험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부모폭력이 가정 내 폭력 노출과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정서적 취약성이 주요 촉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와 피·가해 중복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구분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보이는 정서적·행동적 특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우울, 불안, 정서적 불안정, 심리적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정서 반응을 주로 보이는 반면(김준범, 최서연, 2020; 남석인 외, 2014; 박지연, 2017; 정여주, 김동일, 2012; 지하영, 김빛나, 2020),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공격성과 폭력 성향 증가 등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양영석 외, 2016; 조주영, 오인수, 2014). 특히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은 이러한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정서적 불안정성과 공격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고경은, 이수림, 2015; 김재엽 외, 2016; 이승연 외, 2014; Kozasa et al., 2017; Mark et al., 2019). 즉, 피해와 가해 경험이 중첩된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좌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부모와 같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단일한 특성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서·행동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낙인이 아닌 다층적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순수가해 경험자의 경우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Heimer & Matsueda(1994)가 제시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청소년이 학교, 또래, 가정과 같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역할기대와 규범을 학습·내면화하며, 이러한 역할수용 과정이 비행 행동의 발생 여부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은 학교라는 맥락에서는 또래 집단 내 지위 확보나 권력 관계 유지의 필요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나 가족 규범을 의식하여 행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폭력 행동은 모든 관계에서 일관되게 일반화되지 않으며, 맥락과 역할 기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피해경험 청소년은 대치(displacement)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치 이론은 개인이 위협적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정적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전가하여 표출하는 심리 역동을 설명한다(Freud, 1936). 또래에게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할 때, 부모를 근접하고 비교적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그 감정을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경험군이 부모폭력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 가운데 우울(odds ratio=1.16, $p<.001$)과 아동학대(odds ratio=1.66, $p<.001$)는 부모폭력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과 가정 내 폭력 노출 경험이 폭력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김재엽, 류원정, 김준범, 2016; 김재엽 외, 2008; 이지현, 2024). 반면, 성별, 연령, 소득수준,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연결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복합적 폭력 경험이 가정 내 폭력 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밝히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천 및 정책적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피해와 가해가 중첩된 중복경험자를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특화된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복경험 집단은 부모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단순 피해자나 가해자와는 다른 심리·정서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가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순수피해자나 가해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 우울감,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결여, 정서조절곤란, 학교생활 부적응 등 다양한 내·외현화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경은, 이수림, 2015; 김재엽 외, 2015; Kozasa et al., 2017; Mark et al., 2019). 이러한 복합적인 정서·행동 문제는 또래와의 갈등을 넘어 가정 내 폭력 행동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험군 내 ‘핵심집단’으로 설정하고, 조기 식별과 통합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간의 협력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 프로그램, 또래관계 회복 중심의 집단상담, 부모 연계 상담 등 다층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지원체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푸른나무재단(2024)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98.2%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가 1위(44.4%)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리적 고통과 양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복합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교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에는 청소년의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정적 반응과 대응 역량,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이 밀접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개입은 대부분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모는 여전히 방치되거나 수동적 협조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의 부모를 개입 주체로 포함하고, 무력감·죄책감·양육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서상담, 부모 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8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과 부모 자조모임은 부모의 회복탄력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고, 우울·불안·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조정실, 2023). 부모를 단순한 협조자가 아닌 개입의 주체로 포함하고, 회복탄력성 증진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구조화된 부모 치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관계 회복 중심의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개입은 부모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폭력 행동이 가정으로 확산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과 성장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선별 및 중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아동학대 경험이 부모폭력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학교폭력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다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이 처한 정서적 위기와 과거의 부정적 성장경험이 폭력 행동의 주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을

선별할 수 있는 정서 평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감지된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학교폭력·정신건강·가정위기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 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부모폭력과 같은 2차적 문제 행동의 발생을 줄이고, 청소년이 건강한 방식으로 정서적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은 청소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과 가족·학교·사회 환경 요인을 함께 지칭하며, 이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이 강조하는 개인-환경 상호작용의 맥락을 반영한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 행동은 개인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순수피해, 순수가해, 피·가해 중복)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 행동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과 부모폭력 간의 연결 구조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을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라는 이질적 맥락 속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해석하고, 그 상호작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분법적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넘어, 피·가해 중복경험자를 고위험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폭력 경험 유형 간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조명하고 폭력 연구의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둘째, 실천 및 정책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이 가정 내 폭력 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의 방향성과 체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복경험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개입, 가족 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정서 및 성장환경 기반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실천과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부모폭력 경험은 부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 부모의 응답 또한 기억 오류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부모폭력 척도는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이분화

(dichotomisation)하여 분석되었기 때문에 폭력의 빈도나 강도와 같은 세부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모폭력 경험이 있는 사례에 대한 예측 민감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심리 사회적 변수는 우울과 아동학대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정서·환경적 요인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폭력 간의 전이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또래지지, 부모지지, 지역사회 지지망 등 생태체계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폭력의 빈도·강도 등을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폭력 행동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폭력 행동의 발생 및 확산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개입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영, 배화옥 (2018). 학대경험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서조절곤란과 부모의 훈육방식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4), 1-15.
- 고경은, 이수림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중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3(1), 1-28.
-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36-247. doi:10.5392/jkca.2013.13.09.236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경집 (2005).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421-448.
- 김영희 (1999).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01-118.
- 김웅수, 홍문기, 강진 (2025).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11(1), 153-161.
- 김재엽, 류원정, 김준범 (2016). 성장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친구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1), 5-27.
- 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가해, 피해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83-109. doi:10.20993/ssw.31.4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21-134.
- 김재엽, 이서원 (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HER(Human Ecology Research)**, 37(3), 1-14.
- 김재엽, 이현, 장건호 (2016).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복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233-255.
- 김재엽, 정운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0(2), 29-51.
- 김준범, 최서연 (2020). 피해와 우울의 악순환: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의 종단적 매개로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50, 1-24. doi:10.20993/jssw.50.1
- 남석인, 남보영, 장은혜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57-80.
- 박미은, 김재엽, 정경숙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2), 145-171.
- 박지연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221-240.
- 오은화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05-123.
- 유지희, 이은진 (2022).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71-77. doi:10.21097/ksw.2022.8.17.3.71
- 이소민 (2024). 한국판 성인용 부모대상폭력척도 타당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4), 470-481. doi:10.5392/jkca.2024.24.04.470
-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21(5), 391-416.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이지현 (2024a). 청소년의 부모대상 폭력 영향요인: 성별 분석. **사회복지연구**, 55(4), 189-216.
- 이지현 (2024b).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요인.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5), 457-474. doi:10.62783/shss.6.5.29
- 임남수, 김미정 (202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13(1), 475-494. doi:10.30833/ltpr.2025.02.13.1.475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645-663.
- 정우일 (2012).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1), 177-195.
- 조정실 (2023).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 대상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주영, 오인수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5(4), 301-323.

- 지하영, 김빛나 (2020).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1), 71-92. doi:10.21509/kjys.2020.11.27.11.71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
- 푸른나무재단 (2024). 2024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교육부 (2024, 9월 25일). 2024년 1차(전수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겨레 (2023.5.10.). 촉법소년 존속상해·폭행 10년새 48배 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89.html
- Agnew, R., & Huguley, S. (1989).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9-711. doi:10.2307/352169
- Anna Freud.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doi:10.4324/9780429481550
- Armstrong, G. S., Cain, C. M., Wylie, L. E., Muftic, L. R., & Bouffard, L. A. (2018). Risk factor profile of youth incarcerated for child-to-parent violence: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8, 1-9. doi:10.1016/j.jcrimjus.2018.06.002
- Beckmann, L., Bergmann, M. C., Fischer, F., & Moßle, T. (202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child-to-parent violence: A comparison between physical and verbal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3-4), NP1309-NP1334. doi:10.1177/088626051774612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vete, E., Orue, I., & Gamez-Guadix, M. (2013). Child-to-parent violence: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4), 755-772. doi:10.1177/0886260512455869
- Calvete, E., Orue, I., Gamez-Guadix, M., & Bushman, B. (2015). Predictors of child-to-parent aggression: A 3-year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51, 663-676. doi:10.1037/a0039092
- Condry, R., & Miles, C. (2014).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Framing and mapping a hidden problem.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4(3), 257-275. doi:10.1177/1748895813500155

- Contreras, L., & del Carmen Cano, M. (2016). Child-to-parent violence: The role of exposure to violence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cognitive processing.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8(2), 43-50. doi:10.1016/j.ejpal.2016.03.003
- Cornell, C. P., & Gelles, R. J. (1982).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5(1), 8-14.
- Cote, S. M. (2007). Sex differences in physical and indirect aggress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3, 183-200. doi:10.1007/s10610-007-9046-3
- Cottrell, B. (2001). *Parent Abuse: The Abuse of Parents by Their Teenage Children*. Ottawa: Health Canada.
- Cottrell, B., & Monk, P. (2004). Adolescent-to-parent abuse: A review of literature.
- Evans, E. D., & Warren-Sohlberg, L. (1988). A pattern analysis of adolescent abusive behavior toward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2), 201-216. doi:10.1177/074355488832007
- Finley, L. L. (2014). *School violence: A reference handbook*. Bloomsbury Publishing USA.
- Gallego, R., Novo, M., Farina, F., & Arce, R. (2019). Child-to-parent violence and parent-to-child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11(2), 51-59. doi:10.5093/ejpalc2019a4
- Harbin, H. T., & Madden, D. J. (1979). Battered parents: A new syndrom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10), 1288-1291. doi:10.1176/ajp.136.10.1288
- Heimer, K., & Matsueda, R. L. (1994). Role-Taking, Role Commitment, and Delinquency: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65-390. doi:10.2307/2095939
- Hong, J. S., Kral, M. J., Espelage, D. L., & Allen-Meares, P. (2012). The social ecology of adolescent-initiated parent ab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3, 431-454. doi:10.1007/s10578-011-0273-y
- Howard, J., & Abbott, L. (2013). *The last resort: Pathways to justice. Adolescent violence in the home*. Melbourne, Australia: Digital Reprographics.

- Ibabe, I., Arnoso, A., & Elgorriaga, E. (2014). Behavioral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s predictors of child-to-parent violence.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6, 53-61. doi:10.1016/j.ejpal.2014.06.004
- Ilabaca Baeza, P. A., & Gaete Fiscella, J. M. (2021). Adolescents who are violent toward their parents: An approach to the situation in Chi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1-12), NP5678-NP5698. doi:10.1177/0886260518808856
- Kennair, N., & Mellor, D. (2007). Parent abuse: A review.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8(3), 203-219.
- Kozasa, S., Oiji, A., Kiyota, A., Sawa, T., & Kim, S. Y. (2017).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eing a bully/victim and mental health in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A cross-sectional study.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16, 1-10. doi:10.1186/s12991-017-0160-4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doi:10.1023/a:1005169004882
- Loinaz, I., Barboni, L., & Ma-de-Sousa, A. (2020). Gender differences in child-to-parent violence risk factors. *Anales de Psicología*, 36(3), 408-417. doi:10.6018/analesps.428531
- Lopez-Martinez, P., Montero-Montero, D., Moreno-Ruiz, D., & Martinez-Ferrer, B. (2021). Child-to-parent violence, peer victimization and cybervictimization in Spanis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7), 9360. doi:10.3390/ijerph18179360
- Lyons, J., Bell, T., Frechette, S., & Romano, E. (2015). Child-to-parent violence: Frequency and family correl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0, 729-742. doi:10.1007/s10896-015-9716-8
- Margolin, G., & Baucom, B. R. (2014). Adolescents' aggression to parents: Longitudinal links with parents' physical aggression.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5(5), 645-651. doi:10.1016/j.jadohealth.2014.05.008
- Mark, L., Varnik, A., & Sisask, M. (2019). Who suffers most from being involved in bullying-bully, victim, or bully-victim?. *Journal of school health*, 89(2), 136-144. doi:10.1111/josh.12720

- Moulds, L. G., & Day, A. (2017).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violence towards parents—a Rapid Evidence Assessment.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9(3), 195-209. doi:10.1108/jacpr-11-2016-0260
- Navas-Martinez, M., & Cano-Lozano, M. C. (2022). Profile of the victimized aggressors in child-to-parent violenc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victim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2(2), 100302. doi:10.1016/j.ijchp.2022.100302
- O'KEEFE, M. A. U. R. A.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doi:10.1177/088626097012004005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4), 495-510. doi:10.1007/bf03172807
- Papamichail, A., & Bates, E. A. (2022). "I Want My Mum to Know That I Am a Good Guy ...": A thematic analysis of the accounts of adolescents who exhibit child-to-parent violence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9-10), NP6135-NP6158. doi:10.1177/0886260520926317
- Paulson, M. J., Coombs, R. H., & Landsverk, J. (1990). Youth who physically assault their par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121-133.
- Peek, C. W., Fischer, J. L., & Kidwell, J. S. (1985). Teenage violence toward parents: A neglected dimension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51-1058. doi:10.1007/bf00978515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doi:10.1177/088626090005001005
- Roberts Jr, W. B., & Morotti, A. A. (2000). The bully as victim: Understanding bully behavior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in the bully-victim dyad.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2), 148.
- Roland, E. (2002). Bullying,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Educational research*, 44(1), 55-67. doi:10.1080/00131880110107351
- Rosado, J., Rico, E., & Canton-Cortes, D. (2017). Influence of psychopathology on the perpetration of child-to-parent violence: Differences as a function of sex. *Anales de Psicología*, 33(2), 243-251.

Soong, W. T. 1997.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n Taiwan.

Ulman, A., & Straus, M. A. (2003). Violence by children against mothers in relation to violence between parents and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1), 41-60. doi:10.3138/jcfs.34.1.41

ABSTRACT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s on adolescent violence against parents: A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Shin, Naeun* · Kang, hyunji** · Kim, Yoha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d by adolescents is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engaging in violent behavior toward their parents, and to analyze th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is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18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were used, focusing on 1,552 pairs of adolescents aged 13 to 18 and their parent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violence rates depending on the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with the highest rates observed among adolescents with both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Second, adolescents with victim-only or bully-victim overlapping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mmit parental violence, whereas perpetration-only experience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depression and experiences of child abuse were confirmed as significant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al viol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chool violence can extend beyond peer relationships and manifest as family violence, emphasizing the need for tailored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with complex violence experie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family support systems.

Key Words: adolescents, parental violence, school violenc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Ph.D. Course Studen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 M.S.W.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542467@naver.com

*** M.S.W.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